

최근전미술집

인생은 미완성화

연변인민출판사

최균선문집

인생은 미완성작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동일

책임교정: 남금월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人生是未完成作: 朝鲜文 / 崔均善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6

ISBN 978-7-5449-0324-0

I. 人… II. 崔… III. ①杂文-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②随笔-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88302号

人生是未完成作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3 字数: 35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324-0 (民文)

版次: 2008年6月第1版

2008年6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18.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미완성작”을 내면서

길을 가면서 꽃을 꺾는 사람은 여유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날은 저물어 갈길이 바쁜 나그네에게는 어둑기전에 마지막 주막에 닿으려는 일념밖에 없다. 그저 끝없이 가기만 할수 있을까? 언젠가는 되돌아와야 하는 나그네의 길이다.

문학의 길에서 더구나 행선지가 없이 걷기만 하다가 개탄으로 종지부를 찍는다는것은 너무나 허무한 일이다. 마치 여기저기 그냥 삼질만 하다가 물 한방울 구경 못한채 주저앉아 불운을 한탄하는것처럼 말이다. 나는 인생의 첫아침에 문학의 길을 떠났다. 길량식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으면서도 “남들이 장보러 간다니까 싶지고 나서는 격”으로 덩들해서 떠나버린 문학의 길이다.

려행길은 탄탄해진 길을 따라 갈수 있지만 문학의 길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비탈을 뚫아오를수 밖에 없다. 또한 문학의 길은 혼자 걸어야 하는 외로운 길이다. 멋모르고 이 길에 오른 첫걸음부터 열정으로 달군 꿈을 화불로 삼고 차마 버리지 못한 아집을 지팡이로 사유가 닿을수 있는 공간이면 다 길처럼 여기고 헤뎠었다.

영예의 제관이 기약된것도 아닌데 스스로 허둥대던 문학의 길, 사상과 상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좋아서 떠난 길에 숙명적으로 귀속되고말았다. 누군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길인가고 묻는다면 나는 필경 대답이 궁할것이다. “갈래갈래 갈린 길이 로마로 통한다”지만 내가 걷는 문학의 길에는 종착지가 없다. 될수록이면

생길만 골라서 가야만 그나마 얻는 소감이 남다를것이니까.

안내하는 사람도 없다. 손잡아 이끌어줄 사람도 없다. 그만큼 싱거운 모험이며 갈수록 험난한 길이다. 그러나 갈수록 마음은 넓어져 나름대로의 보람과 애환을 만끽할수 있다. 그렇게 가고 가다가 유감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되돌아 걸으니 향기만방하던 꽃들은 어느 약빠른 사람들이 다 꺾어가고 내가 꺾을수 있는것이란 영성 한 잡초들뿐이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가다가 돌아온 길이여서 잡초만 무성한것인지 모르겠다.

처음 나는 시혼에 넋을 빼앗겨 인생길을 반나마 걷다가 허무함을 절감해서 돌아섰다. 그래서 아무나 꺾을수 있다는 수필이라는 상록수 가지들에 마음이 동해버렸다. 수필을 쓰는 일이란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을 열어 그 열린 마음이 만들어내는 감정을 문자화시키는것이다. 현대 나의 많은 수필들에서는 그것이 잘되지 못하고있다. 그래서 감정이 빠진 지식의 라렬이 되고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사항을 지저분하게 늘어놓고있다. 잠깐이라도 보지 못하면 미칠것만 같은 사랑의 마음이 뜨거운 감동을 낳는 글이 되는것처럼 수필쓰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작용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의 작용을 중시할 때 비로소 읽는이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는 좋은 수필이 창작될수 있는것이다.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간혹 장사가 잘 안되여도 미봉책으로 다른 항업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 내가 수필창작에서 단맛을 못 보고 일컬어 “잡문”에 연감생심 접근을 한것도 이 경우라 해야 하겠다.

잡문이란 무엇인가?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나 여러가지 리론서들에서의 개념도 의연히 확정적인 결론을 얻지 못하고있다.

필자의 잡문줄고가 나름대로 이름지은 “잡문”으로서 웅당 갖추어야 할 물골이나마 열추 갖추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역시 나로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다만 잡문의 문학성을 살리는 수단인 언

어예술을 강구하려고 애쓰면서 형상성과 서정, 두개 방면에서 노력을 해보았을뿐이다. 훌륭한 잡문이라면 형상성은 그 기지로움으로 독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바 곧 풍자성과 유모아 색채가 다분히 풍겨야 할것이다.

잡문은 소잡문과 대잡문으로 나누는데 대잡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체적으로 불타오르게 하고 소잡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리미질해준다. 대잡문을 풍성한 식탁이라고 한다면 소잡문은 한잔의 독한 술과 같다고 해야겠다. 만약 잡문이 세상도는 인심에 아무유익한 점도 주지 못한다면 비수, 투창의 구실을 상실한것이다.

지금은 로신이 살던 시대와 다르지만 로신의 담략과 견식과 량지와 대화방식이 의연히 수요되고 그의 정신과 어투가 수요된다. 그는 고도의 리성사유와 합리하고 정당한 사변성을 전개한 사상가였다. 잡문은 력대로 비판적이였고 심미적이였는바 녹거리 찬가와는 인연이 없다. 잡문은 암흑과 허위에 대해 추호도 타협하지 않으며 어용성은 더구나 용납하지 않는다.

잡문은 여론감독자로, 사상지향의 인도자로, 시대의 강음으로 되어야 한다. 이는 시대가 잡문에 부여한 숙명이라고 해야겠다. 그러한 잡문의 숙명을 알면서도 잡문다운 잡문이 되지 못했으니 잡문사촌으로 읽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서문을 마치려 한다.

끝으로 필자가 어설프나마 문집을 낼수 있게끔 후원을 해주신 고마운분들과 《장백산》잡지사의 성원과 지지,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하느라 로심초사하신 연변인민출판사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2008년 3월 12일



“미완성작”을 내면서

◆◆◆◆◆◆◆◆ 세상보기 ◆◆◆◆◆◆◆◆

우리들이 만드는 굴레	1
바람꽃은 피고지는가?	7
문을 여닫으며	12
세상보기	16
신성한 비애	20
보물을 론한다	24
수자의 자탄	28
그리고 또 다른것	33
력사의 “화석”에 새긴 감회	37
잊으라, 기억하라!	41
모아산에 묻어둔 잡념들	46
회의학서론	50
약속력을 상실한 시대	55
로백성과 “부모관”	59
카멜레온의 웅변	64
권력잡설	68
정치긴달	74
모기를 읊노라	77

“모자”	83
의덕을 말하다	87
염라국탐방실록	93
심리교정을 해드립니다!	101
남녀혼합계산식	105
사랑도 기술이다	113
결혼을 말하다	119
현대호색부	123

◆◆◆◆◆◆◆◆ 인격의 안팎 ◆◆◆◆◆◆◆◆

당신은 수치심을 아는가?	128
천박을 평함	134
《도덕교과서》 부록	137
큰 “대”자에 업혀보다	142
량심의 자술	146
리기를 다림질하다	152
말! 말!! 말!!!	157
불평의 저의(底意)	161
생각하기와 말하기	168
생명과 도의	174
영덩이사유	178
욕망과잉시대의 절경	183
욕설의 철학	189
귀천을 저울질해보다	194
하느님은 왜 웃을까?	199

허영의 시장	205
인격의 안팎	210
소인을 알아보다	215
성실을 내버린 뒤	220
미소하는 삶을	227
아침학 개요	230
얼굴을 읽어본다	235
친구라는 친구	239

◆◆◆◆◆◆◆◆ **살며 느끼며 생각하며** ◆◆◆◆◆◆◆◆

나라 “오락병”	243
장하도다, 입이여!	248
그대 연기전에... ..	251
기아약	255
소의 유축	261
나비의 질문	268
노새의 길	274
로웅의 춘정	278
두 엄마	281
민들레만가	289
보는 가을, 느끼는 가을	292
살며 느끼며 생각하며	296
석양에 태운 상념	301
지각한 사랑	306
그 손!	310

인생의 고개고개에	315
인생은 미완성작	320
고요함에 부쳐	326
고향의 산에서	330
마음의 터밭을 매다	334

◆◆◆◆◆◆◆◆ 문인의 오기와 골기 ◆◆◆◆◆◆◆◆

학문의 곤혹	339
명지와 량지	343
문인의 오기와 골기	347
“문화”범람과 문화폭력	352
붓은 누구를 위해 달리나?	355
슬픈 궤적	362
“나”는 무엇인가?	367
문화의 실종과 총애의 문화	372
문학과 땀	382
문학언어공능의 풍격문제	391
나에게서 수필이란?	399

우리들이 만드는 굴레

인류는 일찍 부자유속에서 자유를 찾아내는 지혜를 터득했지만 동시에 자유가운데서 부자유도 만들어왔다. 말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지각이 들면서부터 온갖 심령의 굴레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객관상에서 형성되는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데 인간의 원초적비애가 있다.

우리는 흔히 육체의 구속을 부자유라고 생각하며 참지 못한다. 기실 심령의 자유가 행동의 자유 못지 않게 요긴한데도 말이다. 아무도 자기를 묶지 않았건만 그냥 속박감을 느끼면서 해탈을 바랄 때 그것을 실현시켜줄 사람은 자기외에 아무도 없다.

스스로 해탈법도를 찾아내기 시작했다면 자아완성으로의 매진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복역수가 지리한 옥살이에 진저리를 치다가 자기를 감형하는 방법을 모색했는데 유익한 일을 하면서 시간앞에서 달리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외국어를 자습하기 시작했다. 일심불란으로 외국어를 학습한 그는 만기석방될 때 60여 만자나 되는 번역고까지 가지고 나왔다. 그는 스스로를 감형시켰을뿐만아니라 심령의 굴레를 벗어버린것이다. 그야말로 마음은 자기 왕국이요 의지는 자기 법률이라고나 할가? 그렇다. 나를 최후로 정할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자기뿐이다.

우리는 감옥의 높은 담장만이 인신자유를 빼앗는것으로 여긴

다. 기실 가장 무서운 감옥에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없다. 전하는데 의하면 지난날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인도농촌에서 도적을 잡을 때 한놈을 잡으면 땅에 원을 그려놓고 그안에 있게 하다가 도적을 다 잡은 다음 함께 끌고 갔다고 한다. 이른바 “둥그라미감옥”인것이다.

이 세상에 감옥에 갇힌 사람은 어쨌든 소수이다. 보다 많은 절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은 비록 자유롭지만 스스로 정신적굴레를 만들어 쓰고 살아간다. 스스로 자기를 속박하는것만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있을까?

자기에 대한 무지가 첫번째 굴레가 된다.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근원적인 심령의 해방을 의미한다. 사람은 자기를 아는것 이상으로 총명할수 없다. 하지만 자아감각팽창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속박하는 굴레라는것을 모르고있다. 이런 자아도취자들은 쉽사리 자아중심주의에 빠져들어 안하무인이 되고 고립무원하게 된다.

반대로 자비감도 심령의 굴레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기둥인 신념을 잃다보니 바깥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부딪쳐보려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들 자신을 속박하고있는 굴레야말로 신념의 결핍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자기의 신념을 벽에 걸어두어서는 안된다. 자기절로 운명의 계하수가 되어 종신형을 받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제일 가련한 사람이라 해야 할것이다.

자기 직업에 대한 염오와 권태도 심령의 굴레가 된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얻었을 때 이미 보상을 받은것으로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 하기 싫은 일은 그 자신의 굴레이자 감옥으로서 형기가 얼마나 길지 자신도 잘 모른다. 어떤 일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지만 누군가가 꼭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곧 책임감이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 지망자가 있는 법이다.

마음에 없는 일터라도 마음을 바꾸어서 감옥에서 외국어를 학습한 그 사람처럼 자기 직업을 외국어학습으로 간주한다면 자기를 감형하는것이 되고 심령의 굴레를 벗어버린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자기비판정신도 하나의 정신적굴레이다. 사람들은 왕왕 남의 단점을 비추는 거울은 앞에 걸고 다니고 자기를 비추는 거울은 등 뒤에 감추고 다니면서 불평만 부린다. 이를테면 중국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탓하면서도 “불필요한” 그 많은 사람들속에 자기는 슷 제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 우스운 사유방식을 가지고있다.

로신의 소설 “아홉근할머니”에 나오는 아홉근할머니처럼 한세대 한세대 점점 더 못해간다고 말세타령을 하면서도 자기만은 레 외인듯이 자족하고있다. 우리는 따지고보면 남보다 특출한테가 한 가지도 없는 사람들이 흔히 양양자득해서 누구보다 머리를 높이 쳐들고 다니는것을 심심찮게 볼수 있다. 무엇보다 자기비판의 무기로 자신을 해부할 담력과 진솔함이 있어야 자기 속박에서 재빨리 해탈될수 있는것이다.

절망도 하나의 질긴 굴레가 된다. 유사 이래 없었던 개혁개방 속에서 얻은 사람과 상승한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잃은 사람, 나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다. 후자들은 기술과 지식, 능력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에 아연실색해하고 비리와 사악과 부패가 성행하는 시대의 풍조에 망연자실해하며 우울한 기분, 슬픈 마음, 운명의 불공평한 장난에 억울해하면서 자신을 절망의 변두리로 내몰아 인생을 아끼고 즐겨야 할 마음의 여유를 빼앗겨버렸다.

절망속에 자기를 가두는것은 너무나 비겁하고 나약한 인생자세이다.

질투심도 자기 속박의 굴레이다. 인간의 “7정”에는 투기가 없다. 그러나 투기는 인류의 진화와 동보하여 오다가 궁극에는 일종 심령의 암증으로 되여버렸다. 투기에서 기(忌)의 뜻은 마음이 이

미 꼭 찾기에 누구를 더 용납할수 없다는것이다. 투기병의 근원은 저능, 혹은 무능에 있는바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못함을 느낄 때 자기도 모르게 발작한다.

질투가 친혈육을 죽인 참극이 있다. 청조 융정년간에 백태관은 당시 이름난 팔대검객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강호를 떠돌다가 떠난지 8~9년이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마을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그는 8~9세쯤 되어보이는 한 어린이가 무예를 닦고있는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솜씨가 비범하였다. 백태관은 저도 모르게 연신 찬탄하며 정신없이 구경하다가 문득 이 아이가 장차 크면 틀림없이 자기를 초과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오리 질투의 검은 불길이 가슴속으로부터 타오르는것을 말려낼수 없었다.

그는 아이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무예를 비꼰다. 아이는 펄경 어린지라 백태관의 적수가 못되었다. 백태관의 칼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아이는 마지막숨을 거두기전에 백태관을 쏘아보며 이를 갈았다. “나쁜 놈, 이제 우리 아버지 백태관이 돌아오면 꼭 복수해 줄거다! 어디 두고봐.” 이렇듯 모든 인간희비극은 질투에서 연출되었고 오늘도 의연히 연출되고있다.

투기병에 걸리면 “사촌이 기와집을 지어도 배 아파나듯”이 남이 잘되면 공연히 심사가 꼬여서 자꾸 험뜯고싶어진다. 그래서 남의 성과가 자신에 대한 참을수 없는 속박으로 느껴지면서 스스로 내린 금고형에 시달리게 된다. 자고로 질투에는 휴일도 퇴직도 없다. 우리 모두가 질투라는 자아감옥에 무기징역수로 남아있게 된것이 아마 그래서인지도 모른다.

허영심도 부러운 굴레이다. 허영심은 조물주의 자만이라고 하지만 사람에게는 심령의 굴레이다. 허영심은 명예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랑심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허영은 현대사회의 첫째가는 악덕이다. 모파쌍의 단편소설 “목걸이”를 읽은 사람들은

하루밤, 허영심의 만족을 위해 결국은 인생의 황금시절 10년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로와젤부인—마멜드를 잊지 않고있을것이다. 우리는 그녀가 자산계급사상의 일종인 허영심의 대가라고 분석해왔지만 기실 허영에는 계급성이 없다. 다만 허장성세하는자는 속이 텅 빈 심리불구자로서 허영심은 그의 어리석은 정도와 등호를 이룰뿐이다.

넘치는 부가 주는 희열감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허영이다. “그대의 재물이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이 얽매여있노라.” 그 재물을 부라고만 생각하면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심령의 굴레를 쓰고 있는가를 모른다. 그리고 돈 없는 려행자는 강도앞에서도 노래를 부를수 있다는 말의 함의를 영원히 깨닫지 못한다. 사람은 우선 필요성을 느끼고 유용성을 찾고 그다음에 편안함을 바라고 그후엔 쾌락으로 재미를 보고 그때로부터 사치에 방탕해지고 결국엔 미쳐서 자기 신세를 철저히 망친다.

인생에서 누구나 모면할수 없는 또 하나의 심령의 굴레는 도덕과 량심이라는 굴레이다. 이는 인간사회와 매개인에게 어디까지나 필요한 굴레이다. 사람마다 도덕과 량심의 약속력을 무시하고 한껏 방종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도덕은 갈수록 미끄럼질에 신나있고 사람들은 자기 량심을 개에게 떼여주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속세의 행복을 끝없이 찾아다니다가 싫증난 사람이 만약 지쳐버린 손을 자기 량심에 얹는다면 어떤 감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만이 알 일이다.

상술한 그 모든 굴레들은 무서운 힘으로 사람의 심령을 속박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해탈할 방도가 없는 치명적인 굴레는 그래도 탐욕심이라 해야겠다. 량심과 도덕 앞에서 탐욕이 배를 내밀고 그게 얼마나 값이 가느냐고 코웃음치며 무작정 따라오라고 꼬드기고있기때문이다. 탐욕에서 “욕(欲)”자는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깊은 낭떠러지라는 의미로 만들어진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설

령 글자의 함의가 그렇지 않더라도 여하튼 탐욕스러운자의 인생은 욕망으로 시작되어 철창속에서 종말짓다는것을 력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탐욕스러운자는 무엇이나 다 제 손에 넣으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나 다 잃어버리고만다. 언제나 열려있는 탐욕의 미궁에로 들어가는 탐욕자의 통행증은 탐욕이고 그들의 묘지명도 탐욕이다. 그래서인지 전 지구적으로 늘 넘쳐나는 감옥이 바로 탐욕이라는 “감옥”이다. 하건만 들어가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있는 추세이다. 일단 탐욕의 굴레를 쓰게 되면 재물을 삼킬수록 소금을 삼킨 미친놈처럼 갈증이 나하고 녀도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죽어서도 녀은 안정을 못 찾는다. 단테의 <신곡>에 묘사된 련옥에서 화형의 징벌을 받기때문이다.

라태도 자기를 속박하는 때 묻은 굴레가 된다. 실패자의 열 사람중 아홉 사람은 절반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휴식한 게으름뱅이라는것을 력사가 증명한다. 라태는 어디서나 우리의 손발을 묶어놓을뿐만아니라 사유마저 묶어놓는다. 자유경쟁의 현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사색의 령역에서라도 로동자가 되여야 하는데 라태한자는 그것마저 싫어한다. 한 사람의 사유가 라태라는 바줄에 묶이우면 그의 일생은 그로서 엉망진창이 되고말것이다.

상술한 이런저런 심령의 굴레에서 끝끝내 해탈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긍정코 행복할수 없다. 온갖 형벌중에서 가장 무자비한 형벌은 자기 마음의 재판소에서 받는 형벌이리라.

우리 모두 자기가 만든 굴레에 매여있지나 않는지 생각해보자.

나부터 심령의 감옥에서 무기수로 있는것이 아닌지 다시 검토해 보아야겠다.

바람꽃은 피고지는가?

바람이 분다. 대지의 언 꿈을 녹이며 기다림에 지친 묵은 가지에 새움을 틔워주는 바람이, 꽃샘바람이 분다.

바람이야 좀 좋은가? 움트는 대지에 초록을 부르는 따스한 봄 바람은 즐거움이요 한여름 나무그늘에서 하늘대는 한오리 청풍은 반가움이요 오곡향기 싹고 재넘어 불어오는 금풍도 그대로 환희로움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란 바로 사회상에서 휘몰아치는 온갖 류형의 회오리바람이다. 이 지구촌에 무풍지대가 어디 있으랴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새 없다고 땅이 넓고 사람이 많은 특정된 인문환경탓인지 건국후 반세기가 넘도록 이 땅에 바람이 잘 새 없었다.

이런 시대풍에 이루어진 풍경선을 다시 돌이켜보면 가슴이 서늘하지 않을수 없고 지금도 한창 불고있는 이런저런 바람들을 피부로 느끼노라면 공연히 먹을알도 없는 “우환의식”이 우습게 나를 흔들어놓는다.

수탉이 울자 천하가 밝아서 세기적숙망대로 땅의 새 주인이 된 농민들이 한창 복된 살림에 재미나 할 때 모스크바에서 불어온 집단화열풍에 호조조요, 고급사요 하다가 드디어 급수가 훌쩍 높아진 선풍을 타고 인민공사가 보급되었다. 잇달아 대약진바람에 실려 공산주의대문에 훌쩍 들어선듯싶던 일이 어제런듯하다. 천군